

상장기업들의 자사주 매입(Buy-back) 현황

오 윤 진 연구원 (shining5@cgs.or.kr)

- ▶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25개사가 35건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하였으며, 그 규모는 약 3조 537억원으로,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2014년도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근 3개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
- ▶ 한편,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37개사가 53건에 걸쳐 약 85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으며,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2014년도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근 3개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

조사의 배경

- 기업의 친주주 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부각되고 있는 자사주 매입(Buy-back)은 기업과 주주가 모두 만족할 만한 주주 환원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음
 - 주주들에게 기업의 꾸준한 자사주 매입은 주식 수급 상의 안전판이 될 수 있으며, 기업은 자사주를 매입, 소각함으로써 주당순이익(EPS), 주당순자산가치(BPS)를 상승시킬 수 있음
- 이 글에서는 최근 3개년을 기준으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파악하고자 함

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현황

-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25개사가 35건에 걸쳐 자사주를 매입하였으며, 그 규모는 전년도 수준의 2배가 넘는 약 3조 537억원인 것으로 나타남 (〈표 3〉 참조)
 - 2014년도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근 3개년 중 최대 규모를 기록할 것으로 보임

〈표 3〉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자사주 매입 현황

	2012년	2013년	2014년
매입 기업 수 (개사)	35	22	25
매입 건수 (건)	41	28	35
매입액 (억원)	15,435	13,778	30,537

* 2014년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임

-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들 가운데 매입 규모 상위 5개사를 최근 3개년도 별로 살펴보면, 상위 5개사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올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(〈표 4〉 참조)
-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자사주를 가장 많이 매입한 5개사는 SK(7,955억원), 삼성화재해상보험(3,871억원), 현대자동차(3,668억원), 삼성중공업(2,886억원), NAVER(2,650억원)인 것으로 나타남
- 위 5개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조 1,0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는데, 이는 2012년도(1조 1,932억원)와 직전년도(1조 2,370억원)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규모임

〈표 4〉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중 자사주 매입 상위 5개사 현황 (매입액 기준)

	2012년		2013년		2014년	
	기업명	매입액 (억원)	기업명	매입액 (억원)	기업명	매입액 (억원)
1	삼성화재 해상보험	3,024	삼성화재 해상보험	3,493	SK	7,955
2	삼성카드	2,939	삼성생명	3,150	삼성화재 해상보험	3,871
3	삼성생명	2,910	기업은행	3,000	현대자동차	3,668
4	SK C&C	1,808	SK C&C	1,763	삼성중공업	2,886
5	NHN	1,251	제일기획	964	NAVER	2,650
	5개사 합계	11,932	5개사 합계	12,370	5개사 합계	21,030

* 2014년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임

- 이는 올해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 기조에 맞춰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요 상장사들이 자사주 매입 규모를 크게 확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내년부터 정부의 배당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, 이 같은 자사주 매입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

코스닥시장 상장사의 자사주 매입 현황

-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37개사가 53건에 걸쳐 약 857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남 (〈표 5〉 참조)
-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자사주 매입을 실시하는 기업의 수는 매년 점차 감소하고 있음
- 올해 자사주 매입 규모는 최근 3개년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

〈표 5〉 코스닥시장 상장사 자사주 매입 현황

	2012년	2013년	2014년
매입 기업 수 (개사)	44	39	37
매입 건수 (건)	51	54	53
매입액 (억원)	992	1,864	857

* 2014년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임

- 자사주 매입을 실시한 코스닥시장 상장사들 중 매입 규모 상위 5개사를 최근 3개년도 별로 살펴보면, 상위 5개사의 자사주 매입 규모가 올해 가장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음 (〈표 6〉 참조)
-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자사주를 가장 많이 매입한 5개사는 메디톡스 (102억원), 이노칩(85억원), 알티캐스트(55억원), 사람인에이치알(54억원), 에스코넥(50억원)인 것으로 나타남
- 위 5개사는 올해 1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346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였는데, 이는 직전년도 (1,205억원) 수준의 30%에도 못 미치는 규모이며, 2012년도(466억원) 수준보다도 작은 규모임

〈표 6〉 코스닥시장 상장사 중 자사주 매입 상위 5개사 현황 (매입액 기준)

	2012년		2013년		2014년	
	기업명	매입액 (억원)	기업명	매입액 (억원)	기업명	매입액 (억원)
1	셀트리온	186	셀트리온	750	메디톡스	102
2	경창산업	94	다음카카오	261	이노칩	85
3	메지온	90	제이브이엠	75	알티캐스트	55
4	네패스	48	메디톡스	65	사람인 에이치알	54
5	AP시스템	48	이노칩	54	에스코넥	50
	5개사 합계	466	5개사 합계	1,205	5개사 합계	346

* 2014년은 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수치임

- 한편, 코스닥시장 상장사의 2013년도 자사주 매입 규모가 2012년도 수준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은 당시 셀트리온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
- 2011년 이래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공매도에 따른 주가 및 기업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하여, 셀트리온은 2013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시행하였음